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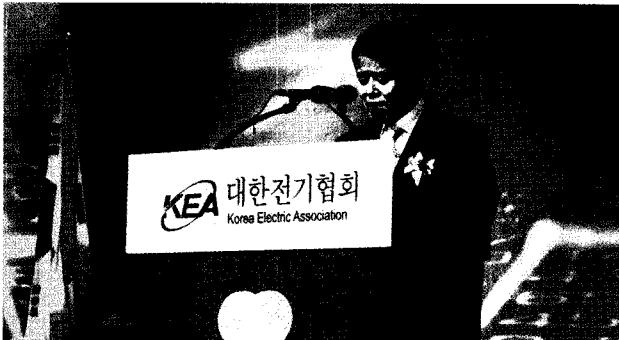
# ‘전기의 날’ 유래 및 기념식 개최 현황

개혁의 바람을 타고 온 문명의 빛  
1887년 최초의 전등 점화, 건청궁

“신난다. 동양의 신비한 왕궁에 내가 발명한 백열등이 켜지다니..... 꿈만 같다.”

백열등을 처음 개발한 에디슨이 대한제국으로부터 전등시설 발주를 받은 후의 감회를 일기장에 남긴 내용이다.  
이 땅에 처음으로 문명의 불이 밝혀진 1887년 3월 경복궁 내 건청궁.

당시 이 광경을 숨어서 본 운현궁(雲峴宮)의 안상궁(安尙宮)은 다음과 같이 회고한다.



“대궐 향원정(香遠亭) 못가에 서양식 집이 세워졌고 커다란 쇠물통 세 개가 높이 솟아있는데, 미국사람 하나가 기계를 만지면 벼락치는 듯한 소리가 나면서 대궐 곳곳에 달아놓은 등롱 같은 데 불이 환하게 켜졌고 궁녀들은 냇을 잃고 도망쳐 이를 숨어서 보곤 했던 것이다. 한데 어찌나 자주 불이 꺼졌기로 임금님을 알보는 건달이라 하여 ‘건달불’ 이라고 불렀다.”

한편 서울 종로 네거리에 처음으로 전기불빛이 밝혀진 1900년 4월 10일, 우리나라 민간 최초의 시등일인 뜻깊은 이 날을 기념하여 대한전기협회와 국내 전기업계는 1966년 ‘전기의 날’ 로 지정하였고, 대한전기협회 주관하에 매년 다채로운 행사를 시행하고 있다.

**민간 최초 시등 1900년 4월 10일,  
‘전기의 날 지정’ .....  
전기계 최대 축제 자리매김**

전기의 날 행사는 전기산업계 발전에 크게 공헌한 유공자들에 대하여 금탑, 은탑, 동탑, 철탑, 석탑 등 정부 훈·포상 수여를 하고 있다. 또한 1989년부터는 전기인 모두의 이름으로 전기산업에 혁혁한 공로를 세우고 현역에서 은퇴한 원로 전기인에게 “전기산업인 최고 공로탑”을 수여하고 있다.

이와 함께 워크숍, 세미나 등의 부대행사를 개최함으로써 전기산업계의 발전과 전기인의 화합문화 조성에도 크게 기여하고 있다.

한편, 전기의 날로 부활된 1983년 이래, 지난 2009년까지 전기산업에 이바지한 유공자를 대상으로 금탑 6, 은탑 7 등 750여명에게 훈장 및 표창이 수여되었다.

2010년에는 제45회 전기의 날 기념행사로 ‘전기설비기술기준워크숍’ 이 4월 7일부터 4월 9일까지 제주에서 개최되었다. 격년으로 열리는 전기의 날 기념식은 2011년 4월 8일 개최될 예정이다. KEA

일시	연혁
2009.04.10	전기의 날 기념식 개최
1985.12.18	정부행사 간소화 추진지침에 의거(국무총리시시 제14호) 「전기산업진흥촉진대회」 격년제 시행
1985.04.10	전기의 날 기념 「제10회전기산업진흥촉진대회」 개최
1984.04.10	전기의 날 기념 「제9회전기산업진흥촉진대회」 개최
1983.04.11	전기의 날 기념 「제8회전기산업진흥촉진대회」 개최
1973.03.30	전기의 날을 “상공의날”로 통합 (대통령령 제6615호)
1972.04.10	제7회 “전기의 날” 기념행사 개최
1971.04.10	제6회 “전기의 날” 기념행사 개최
1970.05	전기의 날 제정(상공부령 제333호)
1970.04.30	제5회 “전기의 날” 기념 겸 「제14회 국제 에디슨 탄생 및 기념 축전(IIBC)」 및 「과학청소년의 날」기념행사 개최
1969.04.10	제4회 “전기의 날” 기념행사 개최
1968.04.10	제3회 “전기의 날” 기념행사 개최
1967.04.10	제2회 “전기의 날” 기념행사 개최
1966.04.27	제1회 “전기의 날” 기념행사 개최
1900.04.10	국내 최초로 일반국민에게 전기불을 밝힘 (종로의 전차대표소 및 가로등)

[ 표 1 ] 전기의 날 기념식 주요 연혁

구분	산업훈장						산업포장	표창				합계
	금탑	은탑	동탑	철탑	석탑	소계		대통령	국무총리	장관	협회장	

수여자 현황 6 7 18 17 26 75 35 54 71 400 108 743

[ 표 2 ] 전기의 날 기념식 포상 현황(1983~2009년)